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Hot issue

FOCUS 2013 거리성탄예배 / 02
REVIEW 캄보디아비전트립 / 04



다일공동체

2013.12



Merry Christmas!



사회적 건강인, 다일가족들에게

영하로 내려 간 날씨로 밥퍼를 찾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의 발길이 찾아지는 것을 보며, 2013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온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다보며 마무리 하면서 후원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11월에는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들을 마련했습니다. 11월 11일 다일의 날에는 중국다일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제빵 기술을 공부한 리일 형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리일 형제를 내팔 포카라다일공동체의 “빵퍼”를 담당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도 있었습니다.

다일영성수련 1단계가 150번째를 맞이하여, 128명의 벗님들이 설곡산에서 4박 5일의 영성수련 끝에 아름다운 세상을 찾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11명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캄보디아비전트립팀이 캄보디아 씨엠립을 찾았습니다. 캄보디아와 아시아의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아시아 다일 비전센터의 건축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전트립 이후에도 캄다사모(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임)를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후원하고 응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에 공공연히 “사회적 장애인”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일정한 시간을 사회봉사하지 않고, 한 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약자 누군가를 위해서 후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일공동체가 1989년 문을 열 때나 1990년 밥퍼 식당 문을 열 때, 1990년 천사운동을 시작할 때는 ‘사회봉사’나 ‘후원금’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 생경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후원회원님들과 봉사자들은 일찍이 다일공동체 사역을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재능으로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와 사회봉사 문화를 선도해 오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과 나눔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값진 열매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되어 왔기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일의 후원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 여명기나 다름없던 그 시절 다일공동체와 함께 기부와 봉사 문화의 꽃을 피워 온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기부와 봉사의 한류」의 횡보를 환히 밝혀주고 정진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경을 넘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지구촌 땅끝까지 이땅에 밥 굶는 이 없을때까지....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다일 후원회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명을 받으신 사회복지 실현의 선구자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2013년 12월에

작은형제 **최**원도 목사 올림

C O N T E N T S

2013.12



- 02 FOCUS 2013 거리성탄예배
- 04 REVIEW 캄보디아비전트립
- 12 국내 다일의 현장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들, 리일선교사, 은혜짜장선교단
- 16 해외 다일의 현장 미주다일공동체, 아동결연, BCP
- 22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 000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24 다일 뉴스
- 28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29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30 후원 안내, 연말정산안내
- 32 천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3년 12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도한, 목정수, 선한주, 이가영, 최가람

사진 | 김도한, 목정수 디자인 | 제이앤제이컴퍼니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2013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어느 덧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벅찬 희망과 설렘을 안고 한 해를 설계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 하는 달이자 한 해 동안 못 다한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의 빈 마음을 채우는 때이기도 합니다.

다일공동체에서 1988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드리고 있는 거리성탄예배는 매년 이어져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예배당의 문턱도 높다고 여기셔서 거리에 모일 수 밖에 없는 소외된 이웃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이 분들에게 참사랑을 전하는 나눔과 축하의 자리입니다.

성탄예배를 드린 후에는 따뜻한 진지와 함께 겨울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방한복과 겨울용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 해 마지막 남은 달인 12월, 그 중에도 성탄절인 25일,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 모두가 함께 거리성탄예배에 참여하여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일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의 사역은 이곳에 모인 2,0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더욱 따뜻한 밤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거리성탄예배 참여나 후원을 원하시면 다일공동체 홈페이지(dail.org), 전화 02-2212-8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

일 시: 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 소: 청량리 다일밥퍼나눔운동본부 앞(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Cambodia Vision Trip



아시아의 희망, 그 시작을 캄보디아로부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비전트립팀이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3박 5일간 캄보디아 씨엠립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Cambodia Dail Community Vision Trip Team went on a 3-night-5day Vision Trip to Siem Reap, Cambodia from November 3rd to 5th, together with rev. Il-do Choi of Dail Community.

비전트립기간 동안 다일센터에서의 밥퍼 및 빵퍼 봉사는 물론이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며 캄보디아의 꿈을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들의 사역들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선교 전진기지가 되길 소망하는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부지에서 모두 함께 땀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는 현재 다일공동체 아시아 해외분원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뿐 만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 복된 소식과 희망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써 쓰임 받게 될 것이며, 동남아시아 크리스천들이 서번트 리더십 훈련과 영성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동남아시아의 화해와 일치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한때 킬링필드로 악명을 떨친 캄보디아지만 이제는 캄보디아를 생명 넘치는 살림의 땅으로, 동남아시아의 다일공동체 모원이 되어 이제 여러 나라를 품에 안고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시아 다일비전센터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로부터 시작된 아시아의 희망이 새롭게 이어지고 또 뜨겁게 이어져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뿐 만 아니라 우간다에도,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다른 여러 나라에도 다일공동체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삶이 뿌리내려서 아시안 뿐 만 아니라 지구촌 가족들을 더욱 살 맛나고 밥 맛나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더불어 함께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시아의 희망! 그 시작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부터! 아하!

Hope for Asia! Starting from Cambodia Dail Community! Aha!

During this Vision Trip, the Dail Community members had a profoundly meaningful time by engaging in Babfor and BBangfor activities and visiting the areas which Cambodia Dail Community serve, to feel and experience the selfless dedication of Dail Community families to realize the dreams of Cambodia. It was a moment of blessing and joy to gather up together at the site for Asia Dail Vision Center and dedicate a heart-felt prayer asking that the Center would become the stepping stone for our Asian mission.

Asia Dail Vision Center will be used as the forward camp to spread the blessed words and hopes to many places in Asia, including China, Vietnam, Philippines and Nepal, where the Asian branches of Dail Community are currently established and currently active. The Center will also serve as the place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for Southeastern Asia in which all children of God will pray, and as a house where the Christians of Southeastern Asia will be trained for servant leadership and spiritual inspiration.

We need your passionate intercessory prayer, participation and support to convert Cambodia, having gone through the sad history of the Killing Fields, into a land of revival filled with life, to build the Asia Dail Vision Center that will become the base for Dail Community and create a beautiful world which embraces many nations in the Southeastern Asia.

We wish the hope for Asia ignited from Cambodia will thrive strongly and continue on, so that the life of beautiful service and sharing by Dail Community take roots in many countries of Asia and will spread to other parts of Asia and Africa, such as Tanzania and Uganda. We also wish that we will create a beautiful world together, where not only the Asians, but also everyone on earth will have a better, more meaningful and more wholesome life.

박선규(사단법인 더불어 꿈 대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근혜대통령 대선캠프 대변인, 다일공동체 협력대사)

감동과 기쁨의 3박 5일

“박선규 협력대사님! 아무런 말씀 마시고 이번에 캄보디아에 같이 가지죠. 3일 오후에 출발해 7일 새벽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느닷없는 전화에, 나른한 오후 잠시 멍하고 있던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 가능하면...” 하고 일단 여지를 두기는 했지만 솔직히 행복한 명령(?)이었다. 급하게 그 기간 동안의 일정을 확인하니 5개, 그 가운데는 이명박 전대통령님을 뵈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어찌랴. 이미 오래전부터 “꼭 한번 가 보리라” 맘먹고 있었던, ‘꿈에 그리던 현장’인 것을.

5시간 30분 정도를 날아 도착한 캄보디아 씨엠립은 내 예상보다 훨씬 못한 모습이었다. 너절한 거리, 울퉁불퉁한 도로, 물과 물의 경계가 모호한 곳에 들어선 주거 공간, 지저분한 호수와 거기에 기대 사는 사람들, 신발도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들, 급식소 가득 밥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허기진 표정들... 특별히 8~9살이나 됐을까 싶은 작은 아이들이 3~4살 동생들을 업고 나와 밥을 먹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렸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궁핍이 널려 있었다. 아마도 1960년대 우리의 모습이 저러했으리라.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6.25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고마운 나라 아니었던가? 12세기 초, 우리의 고려왕조 시대에, 세계가 아직 문명에 익숙하지 않던 때에 앙코르 톰이라는 불가사의한 유적을 건설한 사람들의 후예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대단한 선조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오늘이 왜 저 모양이란 말인가?

그러나 안타까움은 이방인의 감정 일 뿐인 듯,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은 밝았다. 저들의 얼굴에서 피곤과 짜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한 눈빛, 어찌다 눈이 마주치면 예외 없이 건네지는 수줍은 미소는 가슴까지 환하게 했다. 특히 밥퍼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은 한없이 맑고 밝고 초롱초



롱했다. 필경 천사들의 눈빛이 저러하리라. 아이들의 그런 눈을 바라보는 것은 여행기간 누린 큰 기쁨 중 하나였다. 찌들어 붙은 궁핍 속 저 눈빛은 또 무엇일까? 불과 한나절이 지나지 않아 그 맑고 밝은 눈빛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녹색조끼를 입은 한국 사람들은 엄마 아빠 못지않게 자신들을 걱정하고 아껴준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니 아이들을 돌보는 김학용 원장을 비롯한 윤정, 파리, 세인, 예슬 등 다일 가족들의 눈빛과 얼굴 또한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고 한나절 봉사활동을 위해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모습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씨엠립 다일은 직업이나 출신지나 연령에 관계없이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천사로 바꿔주는 매직 공간이었다.

사실 “기독교 단체인 다일이 철두철미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가 궁금했었다. 그 답을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밥퍼, 빵퍼를 통해서, 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선소를 만들어서, 교육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유치원을 만들어서... 저들의 필요를 따라 철저히 생활 속으로 파고든 현장정신이 그 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 생색내지 않는 겸손함에 천사같은 미소까지 더해졌으

“Your honored cooperative ambassador, Sun-Kyoo Park, I really want you to join the trip to Cambodia this time without any further excuses. It is scheduled to leave in the afternoon on December 3, 2013 and return early in the morning of December 7, 2013.” By this sudden call from the rev. Il-do Choi, I was brought out of my stupor on a lazy afternoon. I answered him uncertainly, “Okay if I am available.” Yet, it was a kind of welcome command (?) to me if I spoke frankly. I quickly checked my daily schedule for that period and found out there were five appointments including one meeting with the former president, Myung-Bak Lee. It couldn't be helped! Cambodia was ‘a dream spot’ that I had made up my mind ‘to visit even just once’ for a long time.

Finally, we arrived at Cambodia after around a five and a half hour flight, but it was not what I had expected. Streets were shabby and dirty. Roads were uneven and bumpy. Residential areas were located where the boundary for land and water was ambiguous. Lakes were dirty, but many people relied on them to survive. Children were not wearing clothes and shoes properly. The food service centers were full of children waiting for food with a look of starvation.

Especially when I saw children around ages 8 to 9 years old carrying their younger sisters or brothers around ages 3 to 4 on their backs and feeding them, my heart ached deeply. Everywhere my eyes were filled with poverty. I guessed that our nation Korea was almost at in that same situation in the 1960s. I felt very burdened and sad. What kind of a country is Cambodia? We are very thankful to Cambodia because they helped us when we were suffering in the Korean War, a life-threatening crisis. Aren't they the descendants of the people who built such mysterious relics called as Angkor Thom just in the early the 12th century when all of the other worlds were not yet building a civilization and we were in the Goryeo Dynasty? But what brought them into such a miserable situation today despite that they have such great ancestors and history?

However, this kind of sadness was only the feelings of foreigners. Surprisingly, their faces were bright. I could not see either tiredness or frustration in their faces. Their eyes were kind and soft. Also, they smiled shyly whenever my eyes met with theirs, which made me feel their warmth. Especially the children whom I met at Babfor had eyes which were endlessly pure, bright and shimmering. Definitely angels' eyes must be the same as theirs. That I was given a chance to look at those children's eyes, was one of the greatest pleasures that I felt during the trip. What was the meaning of those eyes even in such poverty? Only after half a day, I found out the secret to them having such pure and bright eyes. The children must have recognized that they were being loved, that they were being respected, and that they were being cared and worried for by the Koreans with green vests as much as they were by their own parents. That reminds me that not only Hank-Young Kim, the chief of the center, but also the Dail families including Yun Jung, Phary, Se In, Ye-seul, and other people who were caring for the children had the same eyes as those children. Also, even travelers who were visiting that place for a half day's volunteer work had the same eyes. In those respects, Siem Reap is a kind of magic space where all the people who visit there are changed to angels regardless of their jobs, nationalities and ages.



Actually, I was wondering what kind methods Dail uses as a Christian organization to allow their actions to be successful in Cambodia while Cambodia is a strict Buddhist country. On this trip, I surely found out the answer to that. In other words, I found out the answer is to have the spirit for the sites, which means to be involved thoroughly



니... 정말 고맙고 뿌듯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철저한 '대한민국 스타일'이라는 것. 다일은 '한국형 원조'라는 모델을 힘겨운 사람들 속에 성공적으로 심고 있었다. 불과 50년 전까지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쉽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은 다른 어떤 나라도 흉내 내기 어려운 '한국형 원조'로 그 빛을 갖고 있으니 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3박 5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 "목사님이 가시는 길, 다일이 가는 길은 한걸음, 한걸음 그대로 역사네요. 지금 멋진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길, 최일도 목사님께 드린 고백이다. 결코 과찬이 아니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만큼 감동했다. 다일과 다일의 모든 식구들이 자랑스럽고 그 일원이 된 내가 또한 자랑스럽다. 정부의 한쪽 귀퉁이에서 책임을 나눠맡고 있는 입장에서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먼 훗날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하리라. "대한민국은 21세기 초반, 2차 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 원조의 일선에 다일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은 한국형 원조모델로,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과 자랑을 심었다!"

이제 돌아온 지 20여일, 내 가슴은 벌써 내년 2월, 어려운 청소년들과 함께 캄보일을 다시 찾을 생각에 설레이고 있다. 이번 비전트립이 감동트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주선에 교수님, 김경선 권사님, 주민관 목사님, 이해훈 의원님, 김도한, 정민경, 선한주, 엄진, 이요한 그리고 최일도 목사님 등 캄다사모(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in their real living depending on their specific needs; food provision through Babfor and BBangfor for the hungry people, provision of shipbuilding plant for the people who need ships, provision of kindergarteners for the people who need education, etc. In addition to that, not only modesty without being snobby, but also angelic smiles were added. What is really thankful and proud is that everything was our own 'Korean style' and Dail was digging in successfully the model of 'Korean-styled support' into the people who suffered from difficulties. Isn't it so proud that we, who were under difficulty to survive without any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even 50 years ago, are paying our previous debts with 'Korean styled support' which can't easily be imitated by other countries?

Three nights and five days passed all too soon. On returning from the trip, I confessed to the pastor, "It is really making history when you and Dail take each step. You know that you are now making a great history." It was not an exaggeration. I found out they did so much work and served much more than I expected. Therefore, I was touched so deeply. I was proud of Dail and the Dail family. At the same time, I was proud of myself as a member of them. I can't help but appreciate them with all of my heart as they share the responsibilities just like a corner of the government. I am sure that the following events must be recorded by history in the distant future: "In the early of the 20th century, Korea became the only country who supported another countries after they had been supported by others after the 2nd World War. Dail community was standing in front of that support and they were digging the Korean people's love and pride everywhere to be changed with the model of Korean-styled support!"

Around 20 days have passed since I returned from the trip, but I am already excited to visit Cambodia Dail community again with adolescents in difficulties next February. I may express great thanks and love to all of the members for Cambodia who helped this vision trip to be a touching one, including professor Sun-Ae Chou, deaconess Kyong-Sun Kim, rev. Min-Goan Joo, representative Hye-Hoon Lee, Do-Han Kim, Min-Kyung, Han-Ju Sun, Jin Um, Yo-Han and, and rev. Il-do Choi.

이해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다일공동체 협력대사)



어꾼쁘레아 예수~!

"환불이 안 되는 티켓이래요" 1박 2일간의 캄보디아 미션 트립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란 생각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어떻게든 다일공동체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이었다. 최일도 목사님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가티켓 중에 저가티켓을 예약 했을 테니 환불이 안 되는 건 당연할 게다. 뽐뽐하게 잡혀 있던 한국 일정들을 겨우 겨우 조정해서 캄보디아로 떠나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꼭 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나선 톤레삽 호수에서의 새벽기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나가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새벽에 선상 예배를 드렸다. 꼭 갈릴리 호수같은 이 곳에서 최일도 목사님이 선택한 말씀도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대목이었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답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양을 먹이라" 는 새로운 미션을 주신 그 장면과 그 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놀랍도록 세세히 느껴졌다.

마침 하나님께서 내 사역의 촉대를 어디에 두실 지에 대해 기도하는 문제를 안고 캄보디아로 떠난 상태였는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참담한 심정인 내 마음을 세밀히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깊이 느꼈다. 마치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새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 위로와 평강을 누릴 때 쫄 불타는 오렌지 색 같은 아침 해가 떠올랐다.

돌아오는 길에 프놈펜까지 이어지는 강을 따라 끝없이 흘러져 사는 보트피플들 마을에 들렀다. 한 두 평 밖에 안 되어 보이는 작은 배에 십 수 명의 일가족이 거주한다는 사실부터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더 놀라운 것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배이다 보니 하루 종일 온 가족이 그 좁은 배에만 갇혀 지낸다는 사실이었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집은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는 작은 배가 있어서 가장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든지 물건을 사러 가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대부분의 집들은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아이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크기의 작은 양동이를 배 대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없이 미래가 없다는 일념으로 그 곳에 학교를 세우고 조그만 통통배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일, 또 우리에게 신발과 같은 배를 만들어 주는 일을 다일공동체가 하고 있었다.

씨엠립으로 돌아와 밥퍼 봉사도 거들었다. 기도하며 정성껏 마련한 식판을 주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 어린 영혼들의 머리를 감싸안고 기도하며 ‘어꾼쁘레아 예수’ (현지어로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따라하게 했다. 식판을 받으려는 어린 영혼의 머리를 감싸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눈물이 끝도 없이 흘렀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 ‘어꾼쁘레아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꾼쁘레아 예수’를 절절히 부르짖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하



는 아이들은 식판을 건네주는 그 짧은 1-2초 사이에도 식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출산율이 높다보니 엄마는 갓난 동생을 보살피느라 여력이 없어 어린애가 자기만한 아이를 업고 배식을 받으러 오는 예는 다반사였고 식판에 가득 음식을 담아주기 때문에 양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기위해 음식을 남겨 비닐봉지에 담아 갔다.

센터 가까운 곳이라면 걸어서 배식을 받으러 올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배달하는 빵퍼 봉사도 하고 있었다. 빵퍼에서 제빵 기술을 익혀 대도시에 취업하고 싶다는 캄보디아 자매에게서 소보루빵 만드는 방법을 약속으로 배워 정성껏 만든 빵들을 멀리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다일공동체가 세운 교회에 가지고 갔다.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있었는데 맑은 눈망울로 호산나를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어린 영혼들에게 60년 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7대 강국이 되었지만 불과 몇 십 년 전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이었고 선진국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쳐주었고 빵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병도 고쳐줬다는 것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비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확보해둔 부지에 들러 함께 기도했다. 자칫하면 거리에 텐트라도 쳐야할 지경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직원들의 숙소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부지를 밟고 서서 모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시아비전센터를 얻는다는 뜻으로 그 부지를 일곱 바퀴 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일 밤 비행기로 떠나 월요일 밤 비행기로 돌아오다 보니 3일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 주셨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디보다도 더 뜨겁게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사역의 현장 캄보디아, 내년엔 세 아들을 데리고 꼭 가고 싶다.

“선생님! 이번 캄보디아 비전트립에 꼭 같이 가시죠?”

청량리 밥퍼는 내가 섬기는 탈북자들과 함께 적어도 7,80번은 넘게 다녔다. 그러나 최일도 목사님을 밥퍼에서 뵈기는 처음이었다. 무척 반가웠다. 목사님은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한다. 사모님과 함께 점심까지 따로 차려놓았다. 원래 30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기에 무척 행복했다.

식사를 하며 느닷없이 “선생님 이번 캄보디아 여행에 꼭 같이 가시죠?”라고 한다. 나는 15년 전부터 프놈펜에 ‘청소년 기술학교’를 시작하여 여러 번 다녔지만 근래에는 몸이 불편해서 가지 못하였다. 몸이 불편하여 망설이고 있는데 여행수속을 맡은 팀장이 벌써 영문이름을 묻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90이라는 나이에 허리통증으로 못 간다고 모든 여행을 거절해온 내가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저녁비행기로 가서 밤 열한시가 넘어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호수로 나가 새벽 선상에배를 드린다. 우리 팀은 통통배 지붕에 올라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다. 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빛이 있으라”고 명하시던 태고적 창조의 순간을 보는 듯 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하며 장엄한 일출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위대하시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체험되는 그 분과의 만남의 순간이 되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은 천하 만물 우리러~” 찬양을 불러도 아직 그 은혜롭고 경건한 심중을 표현할 그 이상의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첫날 만난 그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는데 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을까?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씨엠립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선 땀방울에 검어진 수백명의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생각보다 넓고 큰



건물 안에는 봉사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아이들도 생일이나 된 듯이 기쁜 얼굴을 하고 더 많이 자꾸만 모이고 있었다.

길게 서있는 아이들 앞에 최목사님은 방석위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땀에 젖은 까만 얼굴에 자신의 빵을 비비며 안아주고 어린아이 한명 한명의 손에 식판을 넘겨주었다. 눈물나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받는 사람은 한손으로 받아도 주는 사람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어야 한다’는 인격과 그 삶의 자세가 너무 존귀하게 느껴졌다. 그의 천진난만한 어린애 같은 웃음, 그 기쁨의 생활이 어떤 이유일까? 그의 수양이나 지식이 아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율법을 현실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리라. 이를 통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 지는가보다. 섬기며 주는 삶이라면 주님을 닮은 삶이 아닌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나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전체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려면 주저함 없이 “천사들과 함께 며칠 살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사는 곳은 천국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 천국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는 곳이다. “며칠 살지 모르는 내 남은 생을 천국으로 살아야지...”라며 되내어 본다.



“워싱턴에서 청량리까지...”

“From Washington to Cheongnyangni, Seoul”

밥퍼나눔운동본부와 작은천국과 천사병원엔 전국 각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오십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워싱턴의 한인감리교회의 조영진 감독님께서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들 40분을 청량리 나눔 현장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조영진 감독님은 다일의 사역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초창기부터 미주다일공동체의 고문이 되어주셨고, 매년마다 감리교 목사님들을 인솔하셔서 한국의 다일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감독님과 부인인신 장기옥 목사님 외에는 모두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시는 미국인이셨습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에 마치 오래 전부터 만난 친구들 같았습니다.

눈이 파란 외국인들이 손수 밥을 나눠드리고 설거지를 하자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께서 처음에는 어색하신 기색이 역력하더니, 먼저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고 안아주기까

지 하셨습니다. 밥퍼 봉사는 물론이고 천사병원과 작은천국의 현장에서 형제우애를 나누시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물어보십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정신과 영성으로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시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서 시작한 많은 자선단체와 NGO들이 있지만, 아주 작게 시작한 토종 NGO인 다일공동체가 국제적인 NGO가 되어 여덟 나라에 가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여겨졌다 봅니다.

25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흠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오는 다일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워 하셨습니다. 모두들 입을 못 다물고 감동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여행 경비를 아끼고 모아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 보내달라며 한화 64만원과 \$795를 현금하고 가셨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과 따뜻한 우정도 함께!! 아하!!

Many volunteers from all over the world visit Babfor Sharing Campaign Headquarters, Dail Little Heaven, and Dail Angel's Hospital.

Last October, bishop Young-Jin Cho, a bisho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Arlington district of Virginia, U.S.A. visited Seoul Dail Community with 40 American methodist pastors from Virginia, U.S.A. Bishop Cho is also an advisor of U.S.A. Dail Community with love from its initial stage and he annually visits the Dail community with methodist pastors.

All of them are native American pastors except the bishop Cho and his wife, pastor Ki-Ohk Chang. Although they use different language and have different culture, we felt like old friends around each other because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the same God.

The elderly people of the Babfor seemed to be embarrassed a little bit at first time when they were served by foreigners with blue eyes. But soon they asked to shake hands with the pastors and gave hugs. Pastors shared brotherhood at Babfor, Dail Angel's

Hospital, and Dail Little Heaven and all of them asked like : "What indeed is the meaning of true church?" "With what spirit shall we live like Jesus in our daily life?"

We talked over time earnestly about the topics. They seemed to be amazed by Dail Community. There are many American charities and NGOs in Korea where American missionaries were dispatched to. Moreover, the Dail Community started as a very small social welfare foundation by a Korean pastor. But now it is an international NGO which has branches in eight countries and sends missionaries to other countries in love of Jesus.

They were very amazed and surprised that the Dail Community has been doing its ministries through 25 years. Besides, on the spot, they donated 640,000 Korean won and \$795 which they saved from travelling expenses to Tanzania Dail Community.

What they donated was not only money but also warm friendship and a song we sang together "Where charity and love are, God is there." Aha!!

빵 하나에 사랑을 실어 네팔로.. 네팔로..

리일 형제와 조홍광 자매의 감동의 결혼식

지난 11월 11일, 다일의 날에 매우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일의 아들이자 믿음의 아들인 리일(보단비) 형제가 다일공동체의 최대 기념일인 다일의 날에 조홍광(봄누리) 자매가 설곡산 영성생활수련원에서 결혼식이 선교사 파송식이 이뤄지는 감격적인 혼인예배를 드렸습니다.

리일 형제는 15년 전 중국다일공동체 훈춘다일어린이 집을 통해 다일의 가족이 된 형제입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의 기억과 배고픔의 기억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꿈보다 컸던 리일 형제는 훈춘다일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본인처럼 배 굶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빵을 나누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만강 기술학교 제빵과에 입학하여 제빵 기술을 열심히 배워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2008년,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빵퍼의 공장장으로 첫 사역을 시작했던 리일 형제는 캄보디아 빵퍼의 초석을 다진 최고의 일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길러낸 캄보디아의 제자만 수십 명에 달하고 현재 이 제자들이 캄보디아 빵퍼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훈춘다일어린이집에서 받은 사랑이 중국을 넘어 캄보디아까지 퍼지게 된 것이지요.

캄보디아 비전트립 중에 리일 형제를 만나 리일의 꿈을 들으신 선린대학 전일평 총장님께서 전액 장학생으로 리일을 선린대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에 감동 받으신 밥퍼 명예본부장이시자 세무법인 석성 대표이신 조용근 회장님도 감동이 되어 비행기 티켓 일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린대에 유학은 리일형제는 제과제빵 학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국가기술 자격증까지 획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이루어낸 정말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일 형제는 네팔다일공동체의 포카라 지부에서 빵퍼 공장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혼자였던 리일 형제는 이제 함께 의지하며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아내와 함께 떠나게 되었기에 2배의 사랑으로 2배의 꿈을 품고 더욱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일 형제 내외의 사역과 새롭게 시작하는 네팔다일공동체 포카라 지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더 뜻있고, 더 행복한 빵퍼 사역이 될 것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 후원안내

문의전화 977-98494-58330, 070-8220-3278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은혜의 짜장선교단 김중교 전도사님

지난달 1일 밥퍼의 특식 메뉴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은혜의 짜장선교단'에서 준비해 주신 식단입니다. 은혜의 짜장선교단은 소외된 이웃들과 독거노인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짜장면을 나누시는 귀한 단체입니다.

은혜의 짜장선교단 김중교 전도사님께서 "할렐루야! 아버지님, 어머니님!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외치자 무의탁 노인들과 어르신들께서도 어찌나 크게 환호하셨는지 모릅니다. 짜장면 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정도입니다.

이런 귀한 사랑을 나누시는 은혜의 짜장선교단 김중교 전도사님의 소감과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밥퍼 이렇게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장면이 무척 맛이 있네요. 전도사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어 더욱 맛이 있는 것이겠지요.^^ 밥퍼에서 짜장나눔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요?

김중교 전도사 할렐루야! 한평생 자량이 있다면 주님 만난 것이고 항상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을 존경해 왔고 자연스럽게 밥퍼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짜장면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작게나마 정성을 나누었는데 밥퍼공동체 모든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이렇게 어른들께 따뜻한 진지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형편과 기회가 허락된다면 매 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밥퍼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은혜의 짜장선교단을 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중교 전도사 저희 은혜짜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은혜짜장면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 나눔의 실천을 주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알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이 필요한 곳, 복음을 전하는 곳,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 교회 이웃초청 잔치등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한 몸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감사하며 한걸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밥퍼 앞으로 은혜의 짜장선교단의 사역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하여 더 많은 짜장을 나누며 짜장 한 그릇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중교 전도사 다일공동체와 밥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다일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밥퍼 빠른 시일 내로 밥퍼에서 짜장을 나누시는 모습을 꼭 다시 뵈게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짜장선교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80-3
032-527-6633





사랑의 편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제스민님 가정의 영회시할 기도를 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지난같이 편지를 못 써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
 실을 감사기 오른쪽 눈 망막이 떨어져서
 (망막박리증 이라는 이름) 진행속도가 빨라져서
 수술을 받게 하지 않으면 실명하게 될
 응급수술을 받고 (지난달 9/18일)
 이제는 회복되어서 (98%) 다시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서 이렇게
 편지도 쓸수 있습니다.
 수술후 1달여를 앓으셔서 자야했습니다.
 (우유가면 안되요 - 망막이 붙지 않느라)
 오히려 늘보라도 허리. 어깨. 목
 근육들이 더 심해졌것 같아요. ^^
 덕분에 머지않아 낫아서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수시로 새벽에 기도 많이 했을
 줄라셨는지?
 - 이 편지 자각 증상도 없고
 아픈것도 없고 감자가 좋아해서
 갱신된 분이지 않게 되실것인데
 의사들도 그 원인을 아직 모른답니다 -
 아플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발견해서

이편지가 정말 감사한지
 특히나 우리 아들 큰아가
 11/30일 수술후에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리 미리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때론. 몸가중이 비상중에서 아들은
 결국 눈비도 제때로 붙나라
 이제야 준비한 글자를 바쁘신지
 살았는지?
 그분께서 우리 모든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찬양치 못함이 좀 아쉽지만
 영광이 좋아하셨는데...
 12월 초에나 다시 인사드리게되면
 반박한 날에 갱신하셨는지
 기도를 주시죠!
 사랑하며 행복하...
 11/11/2013
 안.인.은.은

일체 은혜 감사 뿐입니다!

미주다일공동체에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미주다일공동체 후원관리를 담당하시는 조은주 주임님이 아침부터 편지 한 통을 붙들고 감동에 차 말을 못하며 제게 건내어 준 편지는 2006년부터 미주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캄보디아 및 필리핀 등 제3세계 흩어져 있는 다일의 사역을 위해 꾸준히 후원해 주고 계시는 한 후원자 분의 편지였습니다. 매달 후원금과 함께 다일의 사역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편지를 늘 함께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편지가 지난달에 오지 않아 의아해 하고 있던 참에 편지와 함께 후원금이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지난달 갑자기 오른쪽 눈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 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설명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시력을 98%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술 후 1달의 회복기간 동안 누워서 자면 망막이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숙여 앉아서 자다가 오히려 수시로 깨어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감사함을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결혼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발견하게 되어 회복하게 하시어 아들의 결혼식을 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후원금과 편지를 한달 보내지 못하여 저희가 궁금해 할까 걱정해 주시는 편지를 보고 저와 조은주 주임님은 그 분에 대한 감사함에 눈물이 고이고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시며 많이 피로우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더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분에게 닦았던 고난의 시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에 감사함을 고백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편지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지만 그 와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입니다.

순간 이런 귀한 분들의 후원금이 전달되어 해외의 제3세계 다일의 사역지는 오늘도 귀한 후원금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 미주다일의 사역이 있음에 오늘도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따라 우체통에 배달되어온 후원자 분들의 후원금이 담긴 봉투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던지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더욱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감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미주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열심히 될 것을 다짐합니다. 벽찬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해를 설게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고 되돌아 보면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해가 다가옵니다. 더 큰 성공과 행복이 모든 분들께 함께 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Thank you for Impressive Letter



2009년부터 시작된 해외아동결연은 현재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필리핀 다일공동체 지역지의 약 600여명의 아동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매월 3만원의 정기적인 후원금을 통해 아이들은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기에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구걸을 다니거나 일을 찾아다니는 대신, 학교에서 책을 읽고 연필로 쓰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님의 후원금을 통해 아이들은 급식, 보충수업 교육, 생필품(교복, 학용품, 쌀지급)지원을 받게 되었고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선생님, 의사, 군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파일럿, 디자이너, NGO직원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모두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인한 아이들 변화입니다.

‘오늘’뿐이던 아이가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을 가시는 동안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

을 돕는 일상생활은 똑같지만 아이들에게 심어준 꿈과 희망은 아이들의 삶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습관에 익숙해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절약하여 빈곤국가의 아이들에게 아동결연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어렵까요? 브랜드 커피 1잔, 외식 1번, 계절마다 구입하는 옷 1벌을 아낌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꿈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잘 양육 받은 아이 1명이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인재로 성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해외아동결연후원을 시작하시는 후원회원님께는 아동 소개서 발송 및 연1회 발달보고서, 성탄카드가 발송되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를 통해 결연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념일에 결연아동에게 선물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바탕이 된 희망의 촛불을 아이들에게 비춰주시겠습니까?

작은 불빛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주며 아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간직 될 희망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촛불을 켜 주세요

매일 아침 밥짓는 냄새, 왁자지껄 아이들의 웃음소리, 밝게 뛰노는 아이들의 희망찬 발소리,

이 세 박자가 한 데 어우러지는 곳이 해외 다일공동체 지역지입니다. 하루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일 수도 있는 밥을 먹기 위해 아침마다 분주히 모이는 아이들에게 다일공동체는 1차적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밥을 나누어줍니다.

어린 동생들을 안고 밥퍼를 찾아오는 아이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밥퍼 앞마당을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해 다일공동체는 2009년부터 해외아동결연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촛불을 켜 주세요

〈김보성 후원자 편지〉

반고 영호 아저씨께

아저씨, 안녕!! 반고영호아저씨께
 한국에 있는 김보성 후원자 아줌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장난이 많지 않아요, 취미에 재밌게 다들하고,
 잘 공부하네요.
 지난 12월에 우리 형제에게는 큰일이 있었어요!
 아토피로 인해 세배고 귀찮아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좀더 건강하게
 있을수록 11월 아가 20살이 되기 전에 생일이네요.
 친정엄마는 아가 20살이 되기 전에 생일이네요. 친정엄마는
 우리 아들이 낳고, 기쁨을 아저씨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저씨는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아저씨와 아들이 오시면
 안아 주고 사랑과 따듯한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일공동체 생필품들을 통해 편지가 사신, 장난감은 반고영호
 아저씨께 감사하게 주신 아저씨는 자랑스러운 우리 생필품 후원자
 아저씨께 감사하게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을 영위하시길.
 너와 기쁨의 조화와 행복을 위해 기원합니다.

보성의 생일에서, 김보성 후원자
 아줌마 아저씨가

인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로 함께 나누는 행복이 덧셈을 넘어 곱셈으로 보답하는 행복바이러스에 참여할 후원회원님을 찾습니다

BCP? 이 알파벳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재난 발생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경제적인 언어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하지만 저희 다일에서는 BCP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BCP는 Beautiful Change Project! 한글 명칭은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입니다. 소외된 아시아 빈민촌의 구순구개열 장애 아동을 다일천사병원으로 데려와 아름다운 인상을 찾아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얼굴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인상이 바뀌며 삶이 바뀌는 기적을 말합니다.

저희 다일공동체에서 BCP프로그램을 시작한 동기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2005년도에 필리핀 마닐라 톤도 바세코 지역(아시아 최대의 빈민촌)을 방문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벌거벗은 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아이린을 만난 것이 계기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외롭게 사는 소녀였습니다. 입술과 입천장이 절개된 채로 태어나 제 나이 또래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현지 원장님을 통해 이 지역 아이들의 빈곤과 장애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듣고 B.C.P를 계획 했습니다. 2005년 1차로 다니엘, 조엘, 알미라, 세 어린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일천사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고, 이어서 서류절차를 어렵게 끝낸 아이린과 다른 아이들이 2차 B.C.P에 참여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찢어진 입술, 입몸이 회복되어 온전한 얼굴을 찾은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어린이들의 그 환한 모습! 바라보던 사람들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 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차례로 들어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정필훈 학장님 팀이 다일천사병원에 오셔서 수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이린 수술 전〉

〈수술 후〉

빈민촌 아이들의 고통은 구순구개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척추측만증으로 목숨을 위협 했던 소년 뽀안이, 선천성 심장기형질환으로 목숨이 위태롭던 르은이는 캄보디아 소년입니다. 그들을 차례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돌아 갔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멘 어엿한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아름다운 변화프로젝트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 피워낸 꽃이 향기롭기만 합니다.

그 후에도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지역에 있는 다일공동체의 해외 분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구순구개열과 백내장 환자들이 한국 다일천사병원으로 초청되어 무료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여명 동남아 어린이들의 얼굴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시아 지역 곳곳에는 아름다운 변화를 소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에 동참 할 후원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 1인이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후원해주시요

아동 1인 현지 준비비용+왕복항공료+한국체류비용=300만원

※진료 및 수술비용은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해주시요

모임의 대표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대표 분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구체정보를 보내드리며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 후원할 아동 수를 결정해서 연락을 주시고,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 후원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467701-01-12831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아이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해외 아동 결연

한 달에 30,000원으로 아동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변화를 받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 구순구개열 장애(일명, 언청이)는 산모의 영양상태 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발생되어 입술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 선천성심장기형질환은 심기형이라고도 한다. 선천성 심장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선천성인 발생 이상에 의한 심장기형이다.
- 척추측만증은 해부학적인 정 중양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휘어있는 상태입니다. 외관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병형이 심한 경우에는 주위의 장기를 변형시키거나 압박하여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밥퍼는 000이다

밥퍼는 용기이다 지안엄마
나눔과 봉사에도 용기가 필요 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오늘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신 '밥퍼'에 감사드립니다!

밥퍼는 비타민이다 이브자리 김나래
비타민은 안먹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봉사 활동을 안해도 살 수 있지만 나눔으로써 내가 얻는 기쁨이 더 커지고 내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내가 나누는 것에 비하여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은 '밥퍼' 봉사 활동은 최고의 비타민이었다.

밥퍼는 사람이다 서울우유 배은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는 곳 [밥퍼]입니다.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회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알게 해 주는 밥퍼에 감사합니다.

밥퍼는 감사함이다 개인봉사자 윤보람
막연한 봉사활동이란 생각에 오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 작은 힘 하나가, 내 작은 몸짓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밥퍼에 감사합니다!

밥퍼는 밀가루다 동아원 임지현
흩어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밀가루에 물을 더하면 하나로 뭉치는 반죽처럼 마음을 모아주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희망이고 기쁨이다.

밥퍼는 돌을 깨는 망치다 데라게란덴 오은경
밥퍼는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제 마음을, 그 견고하고 단단해진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함이 터져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생각만하고 행동하지 않고 미루었던 제게 다시금 도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퍼는 생명이다 이브자리 고도담
그동안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던 나눔의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점심 한 끼를 준비하고 그 한 끼를 대접하고 한 끼를 마무리하며 '생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밥 한 끼는 그 누구에게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생명의 한 끼이기도 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한 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밥퍼는 생일이다 개인봉사자 조경준
나는 밥퍼에 생일잔치 비용을 기부합니다. 내 생일에 어르신들이 배부르게 드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밥퍼는 씨앗이다 샘물중학교 신의진
각자의 이익만 쫓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끼 밥을 대접하는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이 곳 밥퍼에서 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봉사와 믿음, 신앙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값진 시간이었다. 이 곳 밥퍼는 봉사자와 어르신들 모두에게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어주는 곳이다.

밥퍼는 사람이다 서울우유 배은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곳 밥퍼입니다.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회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곳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부천고등학교



학급별 재량학습 날 밥퍼를 찾아온 부천고등학교 학생 봉사자입니다. 소풍을 가던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밥퍼에 와서 봉사해준 멋진 친구들입니다.

TBS교통방송



늘 좋은 정보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통방송 가족들, 이렇게 유익되는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고마울 뿐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따뜻한 나눔, 가득한 행복의 슬로건과 함께 새마을 금고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미소를 보여 주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함께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샘물중학교



아침부터 젊음의 싱그러움이 밥퍼에 가득합니다. 봉사활동 뿐 아니라 재능기부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준 샘물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서울우유



밥퍼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맛있는 우유와 함께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우유 임직원 분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우유가 최고입니다!

현대상선



밥퍼의 든든한 후원자인 현대 상선 유창근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조직력 있는 팀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현대상선 임직원이 최고 입니다!

데라게란덴



낮은 땅 이라는 뜻을 가진 네델란드어 입니다. 낮은 땅에 눈을 향하는 다일과 밥퍼의 정신과 같은 의미이기에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는 데라게란덴 임직원 여러분들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동아원



첫 봉사의 자리인데 피곤한 기색 없이 모두가 밝은 웃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아원 그룹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밝은 오렌지색의 조끼가 밥퍼의 앞치마색과 같아서 마치 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이브자리



따뜻한 아랫목 두툼한 이불속에 정을 나누듯 이브자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따뜻한 이불과 함께 정성을 나누었습니다. 포근한 사랑의 손길에 더욱 감사드리며 이브자리를 통해 올 겨울 더욱 따스함을 느낍니다!



필리핀다일공동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

이번 필리핀을 강타한 수퍼 태풍 하이옌이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도 너무도 참혹하였습니다. 우리 필리핀 아이들이 토요 어린이에 배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친 코 묻은 헌금을 따로 모아둔 게 5,392페소(약25\$)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모았고, 우리 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탄

자니아다일에 밥퍼 헌금 100\$을 전하고 또 다시 꼬박꼬박 모은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과자 사 먹고픈 욕구 억누르고 바친, 가난한 과부의 두 렷돈 같은 귀한 헌금이라 아이들의 이름으로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소중한 모아왔었습니다. 그 소중한 헌금을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이재민들을 위한 용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저와 우리 간사님들도 특별헌금을 하기로 하였지요. 이번 토요 어린이 예배 때, 아이들에게 이 영상도 보여주고 헌금의 출처에 대해 설명도 해줄 겁니다. 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이 글을 보시는 친구 여러분, 도와 주세요! 필리핀의 울고 있는 저 분들을 도와 주세요! 저 분들이 절망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도와

Philippines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곳 현지에서 저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후원방법 >

- 필리핀 다일공동체 (한국) 계좌
 - 국민은행 467701-01-142581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입금 때 '태풍' 이라고 표기해주세요.)
 - 필리핀 다일공동체 (필리핀) 계좌
 - (1) 페소 계좌
 - BPI 008369-3418-56
 - 예금주 MYUNGHYUN LEE
 - (2) 달러 계좌
 - BPI 8364-0202-02
 - 예금주 MYUNGHYUN LEE
- (입금 때 'typhoon' 이라고 표기해주세요)

탄자니아다일공동체



11월의 메리크리스마스~~

한국은 벌써 쌀쌀하다 못해 추운 날씨가 찾아 왔죠? 날마다 뜨거워지고 있는 탄자니아 쿤두치 밥퍼 센터에 아동결연 아이들이 찾아와 후원 회원님께서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시는 성탄카드를 작성하고 결연 지원 품을 받아 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다해 옷을 만든다는 이태리의 어느 장인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려고 학교 시험

때 보다 더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림한 번 못 그려 보고 전혀 글씨를 못쓰고 띄어 쓰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 탄자니아 공교육의 현주소가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속히 밥퍼 센터가 완공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동화책도 읽어 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후원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코트라(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직원들 봉사.



코트라(대한 무역 투자 진흥공사) 직원들이 봉사를 왔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인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답게 봉사에도 열심으로 임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술선수범하여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급식재료비도 후원해 주었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베트남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또한 한국인 직원과 베트남 직원들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Tanzania·Vietnam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함께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시엠립 쓰룩부역면에는 지뢰피해자 15가정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6년전 이 마을에 우물지원사업을 통하여 지뢰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처음 지뢰피해자 가족분들과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한 것이 주변 마을주민들과 아이들까지 모여들어 수백 명이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2년반동안 길거리예배를 비가오면 비를 맞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후원자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부지가 마련되었고 그곳에 쓰룩부역 다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며 이곳에 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장로님(교회 일에 열심이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이 계십니다.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

고 매일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로님은 크메르루즈시절 지뢰를 밟아 한쪽다리를 잃고 아무 희망 없이 사시다가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하다며 만날 때마다 어쭈 뿌레아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쭈 영가 다일(다일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하며 인사를 하십니다. 늘 계시던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시간에 보이지 않아 집에 심방을 갔는데 방광염과 장이 좋지 않아 자꾸 복수가 차고 몸에 열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계시다고 하여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1년만에 만난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힘겨운 목소리로 반갑다 말씀하시고 탄자니아로 떠나는 김혜경 원장님 잘 가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혜경원장님과 스텝들 모두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Cambodia



하나님, 장로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모든 스텝들이 장로님 치료비를 모금하는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치료비 모금에 참여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장로님 치료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문의: 캄보디아 김학용원장 855-78-708080

중국다일공동체

평생과 송현이

중국다일공동체의 막내 송현이(남, 8개월) 평생(남, 6세)이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되었습니다. 훈춘 시 민정국의 여러 가지 엄격한 최종 심사를 모두 통과한 건강한 가정들입니다. 갑자기 가족 중 두 명이나 입양이 결정되어 너무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도 크지만 평생이와 송현이의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며 송현이와 평생이를 보냈습니다. 늘 중국다일공동체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그 동안 평생이와 송현이 후

원해주신 후원자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가득 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씬아, 송현아...!"

김강성의 시

중국 흑룡강성의 1급 간행물 "꽃동산"이라는 잡지에 다일어린이집 김강성의 시가 올라왔습니다. 강성의 글은 중국 동북3성 각 어린이 잡지에 벌써 세 번째 실렸습니다. 기타도 잘 치고 늘 생각이 많았던 강성의 감성을 시심

China



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다일공동체에서도 한국의 최일도 큰 아버지와 김연수 큰어머니의 뒤를 이어 시인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

Nepal



나는 크리스찬 입니다!

얼마 전 네팔의 최대 명절인 더사인 (한국의 추석)이 있었습니다. 이때면 네팔도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힌두교도들은 온 가족이 모여 철저한 힌두교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 더사인데 다일호프스쿨 학생들 가운데 네명(로산 11세, 알준 12세, 라즈 11세, 비살 14세)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힌두

교 의식을 치르려고 할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힌두교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힌두교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 봤습니다. 더사인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냐? 왜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 하는 말이 "네, 저희는 크리스찬입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던지요.

카스트의 굴레 속에서 거리를 방황하며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다일호프스쿨을 통하여 자신의 희망과 네팔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눈물겹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탄실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네팔을 넘어 인도까지, 아니 지구촌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들아, 너희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야! 사랑해!

다일작은천국

"나도 빨리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인두암과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조00님은 올해 2월에 다일작은천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두암은 입안과 식도 사이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1%로 차지하고 있지 않은 희귀암종이라고 합니다. 인두암으로 인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는데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뇌병변장애로 걷는 모습도 기우뚱거리며 곧 쓰러질 것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00님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밝게 맞이하여 보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성경필사를 하고 계시며 늘 독서를 하십니다. 2002년 아프면서부터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조00님 다일작은천

Little Heaven

국에 오셔서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지금은 두 딸과 자주 만나고 연락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 큰 딸들에게 자신의 짐을 주기 싫어서 2009년부터는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영양제는 금액이 비싸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너무 감사하다며 해맑게 웃어 보이는 조00님.. 부디 완쾌하세요.



다일천사병원

Angel's Hospital



11월의 가을 오색빛깔로 곱게 치장한 단풍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지난 지친 몸 잠시 쉬어가라고 손짓하는 낭만과 사색의 계절입니다. 다일천사병원에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후원 물품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핵의학과 봉사단분들께서

함께 오셔서 입소자 분들에게 든든한 후원자로서 즐거운 마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가셨고 후원물품으로 의료소모품 2box 주시고 가셨습니다.

협력해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시몬메디칼에서 약포장지1box와 의약품 라미텔의 1종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농장 수목원에서 사과 4box 후원으로 탐스러운 과일을 입소자 분들이 맛있게 나눠 드셨고 마음의 풍요를 설렘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온정의 손길들이 곳곳에 살아 있음이 느껴지는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 마지막 달에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늘 발전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밝고 맑게 지내시므로 올 초에 세워 놓으셨던 모든 계획들이 거의 이루시길 바라며 저희 다일천사병원 직원 모두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향어린이집

Yebyang



지역사회연계활동 - 우리 동네 경찰서 둘러보기

소망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 경찰서는 어디 있는지, 경찰서에는 누가 계시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경찰서를 찾아가보았어요. 경찰관 아저씨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친절하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경찰차도 타보며 경찰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원에 다녀왔어요. 현장학습 장소로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원에 다녀왔어요. 경찰도우미 선생님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하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직접 횡단보도도 손을 들고 안전하게 건너보고 육교도 안전하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보며 신호등을 보는 방법도 알아보고 자동차 운전도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소방안전교육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해 알아보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는 우리가 만지지 않아요, 콘센트에 전기제품을 모두 꽂으면 불이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면 안돼요 등 전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별 떨기 그 빛을 숨기지 않고

크리스티나 로세티

별 떨기 그 빛을 숨기지 않고
 새벽 알리는 닭소리
 아직 울기 전인 겨울날 새벽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느니라.
 그곳은 마구간, 구유는 요람.
 자기가 만드신 세상이건만
 평범함 사람으로 그는 나셨느니라.

제사장과 이 세상의 임금님들은
 서울 예루살렘에 깊이 잠들고,
 사람 웅성거리던 베들레헴 마을도
 노인이건 젊은이건 모두 잠들었느니라.
 성도와 천사, 황소와 당나귀,
 서로서로 만나는 겨울철 크리스마스 새벽녘에
 눈을 떴느니라.

엄마 품에 잠든 아기 예수의 모습,
 마구간은 무척 추웠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그러니
 에워싼 양 떼의 목자시라.
 처녀 마리아와
 허리를 굽힌 머리칼에 서리 어린 요셉의 모습,
 성도와 천사, 황소와 나귀 함께
 우리도 영광의 주를 기리리.

크리스티나 로세티(Christina G. Rossetti)
 영국 여류시인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 그녀의 작품은 세련된 시어, 확실한 운율법, 온 아한 정감이 만들어내는 시경 등으로 신비적 분위기를 자아냈다.
 1862년에 최초의 시집 《요귀의 시장(市場), 기타 Goblin Market and other Poems》(1862)를 발표한 후 《왕자의 순력(巡歷) Prince's Progress》(1866)과 때묻지 않은 순결한 어린이의 마음을 노래한 동요시집 《창가(唱歌) Sing-Song》(1872) 《신작 시집 New Poems》(1896) 등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세련된 시어, 확실한 운율법, 온 아한 정감이 만들어내는 시경 등으로 신비적 종교적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신규후원자 (주)대한주정판매, (주)두산전자사업부사, (주)이브자리, 2013년선교후원, KIM YEON JUNG, 강선영, 강성진, 강수진,강오향, 강준희두아들공배선, 공현진, 권명희, 권여선, 권오경, 권준희, 김경선, 김국환, 김귀영, 김남중, 김다빈, 김덕희, 김동수, 김매리, 김병호, 김보라,김보현, 김선숙, 김성숙, 김소명, 김수현, 김승태, 정찬애, 김승해, 김영숙, 김예진, 김용규, 김용덕생일, 김원영, 김은영, 김은지(A), 김은지(B), 김정미, 김정수, 김종섭, 김종수, 김진우(A), 김진우(B), 김진욱, 김총국, 김해성, 김홍국, 나우경, 노경민, 다일의날기념, 대기리교회, 도경민, 마승서, 메종드슈에뜨,문성애, 문영신, 문정희, 박광순, 박모진, 박미리, 박병규, 박선규, 박성례, 박소현, 박완수, 박유희, 박정아, 배경희, 배윤아별정우체육국연금, 서선태, 서영상, 성서교회, 손선영, 손정자, 송여진, 송요익, 수원시의회신우회, 신경숙, 신금호교회, 신성호, 신은철, 신춘화, 신형준, 안평희, 양윤성, 엄정엄진, 여정희, 오오순, 오해진, 오현주, 유승민, 윤보람, 윤서녀, 윤지현, 윤총수, 이경복, 이금영, 이남용, 이명숙, 이병현, 이상현, 이성일, 이순애, 이영예, 이영희,이옥순, 이요한, 이재선, 이정이, 이지영, 이태진, 이형근, 이혜진, 임남순, 임택중, 임화자, 임효실, 장미화, 전미자, 전영실, 전인기독학교, 정가왕, 정동기, 정서용, 정양욱, 정영환, 정재엽, 정초이, 조성기, 조순심, 조은옥, 조은희, 조현경, 종현주경준, 주나의교회, 주예원, 주예찬, 주예원, 주정민, 주창애, 주경, 천세은, 천재욱, 최성욱, 최순애, 최시은, 최은미, 최정란, 최정훈, 최주원, 최준영, 캄장로남치리비, 탄자니아하싸니후원, 파스퇴르, 표은, 하정호, 하현숙, 한규혁, 행복의집, 허은교, 허재벽, 황두례, 황은실, 희망브리더봉사단, 희숙은교재수 (가나다 순)

받퍼니눔운동 2013.10.11-11.10

10월 후원금 광현교회, 국방홍보원, 권혜진, 금우위원회, 금호석유, 김용규, 김윤성, 대한지적공사, 데라게란덴, 두산, 두산산업,두산전자, 박광순, 새로운교회, 서울석유, 석성, 소망봉사팀, 수도권산악회, 안동일, 안평희, 연세의료원, 오미옥, 오해진, 옥합선교회, 외환은행나눔재단,윤현숙, 이동원, 이브자리, 이종욱, 이희숙, 장미화, 장은하, 정신남, 조경준, 조규대, (주)에스지엔지, 최주영, 포름서울지사, 한국주정협회, 현대상선, 흥경화

2013.10.11-11.10

10월 후원물품 신변양 국수 6박스, 무명 쌀 20Kg, 드림제단 빵 3,200개, 서울우유 2,016개, 한국전력 참치캔,햄 , 외환직원 소금20Kg, 윤애선 고구마 3박스, 사조해표 고추가루, 카레, 사조대림 고기전804봉지 ,황우유통 소내장, 행복떡집 참쌀떡 1000개, 윤애선 감자 60kg, 에스지엔지 고추가루 100근,한국중부발전 김 40포, 이브자리 이불 50채, 서 리차드 현 쌀20kg 23포

중국다일공동체-신규후원자 강영남, 권윤경, 김경미, 김성재, 김송현 양부모님, 김제인, 양자선교회, 영광제빵, 요이판 이모부, 이숙의, 조용근, 훈춘시 부련회

옥 님, 탄자니아 한인교회, 홍순길 님

베트남다일공동체

【백불의 기적】 기업은행(3,155,000동),김준, 대광, 대우 인터넷서널, 대장금(1,000만동), 롯데리아(420만동), 보민건설, 베가스(400만동) 사이공한인연합교회(300만동)신하은, 신하영, 아리랑화학, 아산상선(4,208,000동), 포스코베트남(600만동), 포스코SOUTH ASIA,한동이엔씨(5,110,000동), 호치민한인 여성회(500만동), 향기론목장, LOSCO

【후원자】 CHUNG(100만동), Caitlin, Kei, Sonic(986,000동), 김승민, 김승준, 김태연,배준익, 배서진, 배진영, 이종환, 전기성,최기흠, 최해인, 최해린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나나인형 극단, 엘 라인, 이해명 님, 최정

캄보디아다일공동체 10.18-11.18 후원자, 방문자

건국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학번, 고세인/이파리, 군포생수교회, 권민중, 근로자문화예술제 수상자 해외문화체험, 김도한, 김보성, 김혜경/변용수, 나돌성선교회, 대구달서구청공무원 자원봉사자, 대박, 드래곤투어이세민, 김상진/오승재,밀양남부교회, 박성근가족, 보은군 자우너봉사센터 소장 김순자, 부산뱌퍼이사 김대용사랑과섬김 모임, 사랑의교회, 삼각교회, 서울 중동초 역사탐방관, 옥천군자원봉사센터, 유병희이순주집사, 전영기/이금영/예지/민지, 주선애, 카도, 클럽나우, 한승민가족, 허벌라이프 박지혜

【후원품】 옷 10BOX

천사병원-후원물품 사과농장수목원 사과 4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온메디칼 약포장지 1box연세대 핵의학과 봉사단 후원물품은 의료소모품 2box, 의약품 라미벨1종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맑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9

E-mail bom@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일 후원가족 여러분.
늘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기부금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올바른 주소지로 발급되도록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변경
회원가입하신 후 후원하신 내역확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02)2212-8004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다일복지재단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www.dail.org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온라인증명서 발급 → 기부금영수증)



우편 수령하기
2014년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후원금액 합산 기준

2013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납입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는 12월 20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3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지रो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12월 26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3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천사를 찾습니다!

개신교 최초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천사가 되어주신 분들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천사후원을 해 주신 많은 후원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차 천사부터 현재 9차 천사까지 모든 후원회원 분들께
소식지로 전화로 다일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어
그분들께는 안타깝게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일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천사운동에 동참해주신 천사회원이신데,
소식지 「다일공동체」와 다일의 행사 소식을 받지 못하시거나
그런 분을 알고 계신다면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 02.2212.80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을 위한 천사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천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자리,
“스물여섯 번째 거리성탄예배”에 모시고자 합니다.
예배당의 문턱도 높다고 여기셔서 거리에 모일수 밖에 없는
소외된 이웃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나눔과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12월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민도 목사 및 공동체 가족일동 올림

일시 I 2013년 12월 25일 (수) 오전 11시
장소 I 청량리 다일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
내용 I 성탄축하예배 / 방한복 나눔 / 무상급식 및 도시락과 선물 나눔
문의 I 다일복지재단 TEL: 02-2212-8004 Cell: 010-3668-8004

| 주최: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공동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DaIL 다일복지재단 Social Welfare Foundation